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04호 [국제 제 25247호] 주체 105(2016)년 4월 13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주체적국방공업건설사에 영구불멸할 선군혁명업적 천만년 길이 빛내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군사혁명사적지에 높이 모시었다

【성천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나라 군대의 인민이 쟁승의 신심과 막판에 넘쳐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성의 70일전투의 철야전군에서 거대한 사면적인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이룩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군사혁명사적지에 높이 모시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군사혁명사의 고향으로 빛나는 혁명사적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변의 혁명업적을 만대에도 길이 빛내이며 영웅적군수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당의 변천조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헌만군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열화같은 충정의 분출이다.

군사혁명사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12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제막식장은 선군혁명영도의 나날 군사로동계급을 찾고찾으며 1950년대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영웅적사투의 위훈을 조국통일사에 길이 빛내어주시였으며 나라의 국방공업을 백두산성세, 강성국가의 병기창으로 뽐내주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그리움의 정으로 설베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제막식장에 걸중히 모셔지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지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십시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십시오!>, <1950년대의 군사혁명사를 새 세기에도 변함없이 이어가자!>, <백두산혁명공업, 강성국가의 병기창을 뽐내며 다지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지였다.

제막식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현재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열사유령!>, <일선단결!>이라는 글판을 드러운 대형기구들이 띠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양렬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및 민항공군, 로동적위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가들이 세워지였다.

김일성동지, 박봉주동지와 비간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와 군수공업부, 판매부, 인민군, 로동자, 기술자,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인민군, 공로자, 전설자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제막식은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의 책임인들과 군수공업부문의 인군들이 하였다.

순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영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체 참가자들이 리처울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편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의 하늘을 아름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무해주신다는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명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 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군수공업부문의 전체 로동계급과 인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심장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어떤 모진 풍동이 불어오고 세상이 얼얼변변한다 해도 당중앙택에 운명의 피를 잇고 일관 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과 영도의 유일공점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권결단결의 성세, 당배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총성의 70일전투의 철야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일리마시에서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드리는 자랑찬 보람적인 일을 맞고 승리의 5일을 뽐냈듯이 오늘도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사혁명사적지의 동상제막식은 동상제막식을 위하여 헌신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붙어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애정을 듣고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를 높이 모시었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를 높이 모시었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를 높이 모시었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를 높이 모시었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를 높이 모시었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를 높이 모시었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를 높이 모시었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를 높이 모시었다. 그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헌신으로강령준수를 이어가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군수로동계급을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변 앞장에서 받들어주시는 기수, 총각대로 내세워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나라가 오늘날은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의 혁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한이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는데 애국충정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산림가정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는데 애국충정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산림가정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 산림가정들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였다.
... 산림가정들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였다.

1점보의 솜이나무모발을 번뜻하게 꾸려 놓고 때마다 17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
... 산림가정들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였다.
... 산림가정들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071호

주제105(2016)년 4월 7일

김정숙제1중학교, 하당은하피복공장, 은하자재상사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교내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새 세대를 육성한 혁명인재, 나라의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워냈으며 지역경제의 혁명전진으로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밀려진 인민경제회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김정숙제1중학교, 하당은하피복공장, 은하자재상사에 민족최대의 명칭인 태양전에 즈음하여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070호

주제105(2016)년 4월 7일

박길남 동지에 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명적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생산자대중을 당의 사상전철전, 당정책옹호전선에 힘있게 불러일으켜 공상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박길남동지에게 민족최대의 명칭인 태양전에 즈음하여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민족최대의 명칭인 태양전에 즈음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조국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인들, 동맹원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었다.
... 김일성소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 김일성소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백두산 천출 위인들께

백두공산당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공산당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상장을 드리였다.
... 백두공산당 중앙위원회 홍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백두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을 칭송하여 그분들께 상장을 수여해드리는데 대한 결정을 전원회의에서 단강철기로 채택하였다.

나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조선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백두공산당의 명의로 상장들을 정중히 전달하게 됨을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한다.
... 나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백두공산당의 명의로 상장들을 정중히 전달하게 됨을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단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전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하마두 부하리 무라후...

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라는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 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라는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072호

주제105(2016)년 4월 7일

군자리로동계급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군자리로동계급훈장은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취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로동계급의 혁명적본태를 고수하고 우리 나라를 새로운 공업국가로 비약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본의 불화를 지겨주시어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이 백두산성세인 주체적국방공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게 하시었다.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전선생선에 펼쳐나신 군자리로동계급은 투철한 수공업기술정신과 조국수호정신, 지역경제, 간교분부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결사항전으로 뚫고 헤쳐나 많은 후기와 탄약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줌으로써 승리의 7.27을 인어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군자리로동계급훈장을 제정함에 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깊이 배웠던 군수공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물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092호

주제105(2016)년 4월 8일

자강도 우시군에 모범지방공업군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신적인 창조정신과 열정을 힘있게 발휘하여 모든 공을 삼키 좋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시군의 공업개발을 높이 평가하고 자강도 우시군에 모범지방공업군청호를 수여한다.

훈장의 위에는 《군자리로동계급훈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으며 옷에 달기 위한 띠가 있다.
... 훈장의 위에는 《군자리로동계급훈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으며 옷에 달기 위한 띠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092호

주제105(2016)년 4월 8일

자강도 우시군에 모범지방공업군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신적인 창조정신과 열정을 힘있게 발휘하여 모든 공을 삼키 좋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시군의 공업개발을 높이 평가하고 자강도 우시군에 모범지방공업군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시, 군당 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시, 군당 대표회들이 진행되었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시, 군당 대표회들이 진행되었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시, 군당 대표회들이 진행되었다.

국가책임일꾼들과 당, 군수공업부문 일꾼들 군자혁명사적지 참관

【성원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일성동지, 박봉주동지와 당, 군수공업부문, 관제부문 일꾼들이 12일 군자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 국가책임일꾼들과 당, 군수공업부문 일꾼들 군자혁명사적지 참관
... 국가책임일꾼들과 당, 군수공업부문 일꾼들 군자혁명사적지 참관



국가책임일꾼들과 당, 군수공업부문 일꾼들 군자혁명사적지 참관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하 포병구분대들 야간에 기습상륙하는 적집단을 격파하기 위한 실탄사격훈련 진행

【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우려는 미제침략자와 동족대적에 미쳐남기고있는 막근해적무리들에게 대한 천만군민의 보복열기가 하늘에 닿았고 원수적멸의 의지로 단결한 백두산혁명군대의 무적의 총대는 악의 소굴을 노리며 무섭게 피세지고있다.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천하무대의 망망지해를 갈행한 남강도 미제와 피의적괴담에 대한 지긋지긋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절절 끓이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한 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하 포병구분대들이 야간에 기습상륙하는 적집단을 격파하기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1월 대련합부대관하 단련포사격기지를

지도하시면서 포병사수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이며 명포수운동인에서 무도의 영웅포병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일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제287대련합부대들이 장비한 각종 구경의 포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이며 평화적인 핵보유에 대하여 갖은 악담질을 해대다못해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지멸되는 망동과 무모한 도발에 매여달리는 원수들을 다발적이고 편속적인 공격전, 초정밀타격으로 단호히 쓸어버릴 최정예혁명군대의 필적의 의지가 강철포신들마다에 세차게 백동되고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가 훈련을 지도하였다.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 짙은 어둠속에서 불이 우리의 해상으로 침입한 《적》 함선들이 정확히 발견, 식별되었으며 사격 준비가 순식간에 완료되었다.

리명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사격명령을 내리었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어둠을 헤가리며 시뻘건 불꽃들이 하늘을 뚫고 《적》 함선들을 연해연탕 명중타격하였다.

우리의 신성한 해안에 어떻게 하나 달라붙으려고 악을 쓰며 밤드리고야마냥 기여들던 《적》 함선들이 영웅한 포병지적수들에 의하여 단방에 박살나고 타격구역은 죽음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침략의 무리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때리는 포탄 한발한발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명하 내리시던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까지 빼앗아려고



무궁강대하라, 수령복, 장군복이 넘치는 백두산대국이어

세상에는 복이 많다. 그 많은 복을 다 합친다 해도 비길수 없는 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령복, 장군복이다. 복종의 복인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력사가 칭송하고 만민이 우러러 따르는 불세출의 백두산인들을 모시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인민으로 되었다.

4월 13일, 력사에 특기할 이날은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 큰 경사의 날이다.

20여년전 이날에 우리 인민은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수령복을 삼아 드리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해인 4년전 이날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으며 경애하는 원수들을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추대하는 대경사를 맞이하였다.

한해에 뜻깊은 날은 많아도 이날처럼 과거와 현재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휘황한 앞날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날이 또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일이다.』

민족의 복은 비단이라고 하여 저절로 오지는 아니하다.

위대한 명장을 모셔야 화를 모르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것이 세기를 이어 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뼈에 새긴 력사의 진리이다.

우리 인민이 민족적수난과 불행을 가시고 복을 누리게 된것은 장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때 부터였다.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반대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생각할 때면 《E, C》가 결성되던 력사의 그 언덕으로 우리의 마음달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E, C》를 결성하신 수령님생각을 하시며 10대에 벌써 세계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뜨겁게 고시하시었다.

해방전 풍양 리운형은 태년도 안나보고 평장들도 만나보았는데 어떤 독립인을 가지고 돌아왔는가고 묻는 기자들에게 모스크바 코메플리에도 식민지민족의 독립안은 없었다고 하면서 조선독립은 10월혁명을 이끌던 명수나 로장들보다 더 큰 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적이 있었다.

그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국경경비진을 무력화시키신 그 용맹한 포탄포진소식을 듣고 이제는 때를맞추어 함께 싸워버릴 최정예가 우리 조선에 나타났으니 삼천리강토에 재건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환성을 올렸다.

어머이수령님께서 조선의 운명, 민족의 미래를 관통해 지니시고 20성상의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업무를 빛나게 실현하시었다.

세계전쟁역사에 없었던 엄청난 대적의 싸움인 항일대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되리라고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는가.

해방후 어느덧 이진 초원을 방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쓰말민은 연회식상에서 우리모두 열렬한 박수로 김일성동지께 감사사를 드리치고,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치고 하였다. 그것은 외교관계를

향상을 들으시며 평장의 승기와 담력을 기우시고 전회의 나날 최고사령부 작전대령에서 필승의 지략과 명군술을 익힌 백두의 명장 김일성장군.

지난세기 90년대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닥쳐왔던 그 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오랜 력사를 가진 강대국이 용 한방 제대로 파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진 비극의 원인은 위대한 명도자를 모시지 못한데 있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고립과 배제, 압력과 봉쇄를 비롯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써 우리 공화국을 폐지하려고 미쳐달렸다.

세계제국주의연합체회의의 대결, 인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대결, 인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대결을 이겨나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은이 모신것을 내 눈으로 보고 김일성장군이 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문밖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며 위대한 명장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보통으로 천지판을 이겼것과 같은 세계전쟁사의 거적의 요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었다.

백두의 실탄총속에서 항일대전의

위대한 김일성민족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해운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우리 민족의 정치지도자로서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 속에 깊이 뿌리박힌 신념이었다.

선군대양 김일성민족!

그이는 어머이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또 한번 인이일으켜 강성부흥으로 비약시켜주시어 위대한 명장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새 세상에 불어선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린 수령복, 장군복이야말로 김일성민족의 행운이었다.

연세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가 우리의 실정을 슬러준다.

김일성민족은 저 하늘의 태양 이라고,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날은 환히 밝고 장창하다고 하시던 어머이수령님의 그 절절한 용성이었다.

진보적인 인류는 명도가 커서 아니라 위대한 명장을 모실 때 나라를 양보와 타협을 권고하고 자라도 된다는것을 고귀한 진리로 새겨 선명함을 모신 조선에서는 그 어떤 압력과 봉쇄도 통하지 않았다.

조선은 민족의 생산관망, 사회주의 수호의 력사적중임을 떠메고 반사회주의의 압박을 이겨나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은이 모신것을 내 눈으로 보고 김일성장군이 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문밖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며 위대한 명장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보통으로 천지판을 이겼것과 같은 세계전쟁사의 거적의 요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었다.

백두의 실탄총속에서 항일대전의

